

농어업인의 대표조직,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함께 해 주세요!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농어업회의소가 뭐야?” 하시는 분이 아직 더 많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농어업인 대의기관이자 민관협치를 위한 공적 기구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회로서 농어업인 권익향상을 위한 대표 의견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고, 제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수용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상공회의소’를 만들어 진작부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멀게는 1970년대부터 학계에서 이야기 되었지만 1998년 관련법을 만들어 중앙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추진하려다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2010년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남 나주 등 시군에서 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에서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난 9월 진안군농어업회의소가 출범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는 2차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경남 거창에서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농업포럼에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말만 반복하며 앉아 있지 말고 빨리 행동에 옮기라고 게으른 후배들을 다그치시며 열정을 토해내는 원로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는 잠시의 정세와 무관하게, 더 높은 차원과 보다 긴 안목에서 농어업인단체와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작년 시범사업이 도입될 때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빌었듯이, 또 10여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는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조합해서 얻은 이름입니다. 농어업인단체, 농어업계 오피니언리더, 전



문가 등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논의기구이며,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범농어업계의 공감대를 넓히고 추진동력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업회의소를 제안하고, 촉진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또다시 자리싸움하면 다 같이 망한다는 1998년의 교훈을 너무 잘 알기에 이름 그대로 '지원'을 위한 '회의체'입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를 마련하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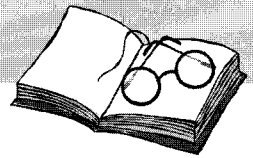
요즘 유행하는 재능기부 형태의, 내가 가진 힘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나올 것입니다. 농어업회의소가 뭔지를 알리고 설립을 제안할 것입니다.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담당해야 할 일거리와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구름같은 조직에 그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3~5년의 그림을 그려놓고 조급하지 않게, 그렇지만 소결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로 힘을 모아 주시길 호소합니다.

선진국은 농업을 나라의 근본이 되는 산업으로 보고, 농업을 반드시 지키고 유지하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나라들입니다. 가족농 중심의 농업·농촌 유지 발전 전략을 채택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농어업회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정치사회적 대표조직으로 회의소, 경제적 사업조직으로 협동조합을 양대축으로 이와 적절하게(농업·농촌에 대한 수위를 조정) 공격과 방어기능이 대부분임) 역할분담을 한 농어업인단체가 민간영역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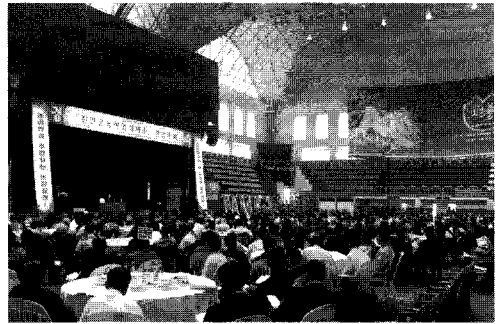
이를 통해 민간이 주도해서 지역의 자원을 보전하고 농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찾고, 정부가 간접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업인 대표조직인 회의소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며 경험도 필요할 것입니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민관 협력에 의한 새로운 농어업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한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어낸 나라들이 선진국인 것입니다.

한국 농어업의 현실이 위태롭습니다. 비판하고 날을 세울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농업·농어촌의 위축과 위상 저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우수항쟁'을 빼고는 농민을 언론에서 제대로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농산물이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TV에서 계속 나오는 것과 대비됩니다. 우리나라도 농어가인구가 7%에서 2~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전에 농어업인 대표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많이 복잡해졌고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과 정보의 전



과는 몇 년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민간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시대는 역사의 뒀안길로 물러난 것입니다. 민간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과제이지만 협치는 미룰 수 없는 대세인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줄임으로써 농어업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서 시군의 기획역량이 축적되었습니다. 시군에서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선택과 집중의 정책지원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어업·농어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국민농업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계를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의견을 상시적으로 표출해야 합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도 정부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들에 농어업계의 대표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누고 조정하는 것과 별개로 밖에서 끌어들이고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며, 농어업회의소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잘 어울리는 조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나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지금 평창, 진안, 고창, 나주, 봉화, 거창에서는 시군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가 출범(1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음)을 앞두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어민단체들이 2011년 사업계획으로 농어업회의소의 확대를 채택하고 연례 교육에 농어업회의소와 관련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단체들의 구체적인 활동에서의 적극성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필요성은 함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의 시범사업, 현장에서의 사례발굴을 통한 농어업회의소의 성공과 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활동과 노력에 자신의 힘을 보태는 수고와 함께 실천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업회의소를 접한 농어업인이 먼저 우리 지역에서 이를 알려내고, 시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개인과 단체가 회원으로 함께 가입하고, 중앙단위의 “농어업회의소 지원회의”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며, 농어업인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참여농정 소통농정이 꽃을 피우길 기원합니다. ☺

농어업회의소 주요문답 Q&A

□ 농어업회의소란?

지역 농어업인의 민의를 수렴하여 농어업정책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한정된 지역의 자원을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반민·반관 형태의 농어업인 자율조직입니다.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목적은?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 회원의 의견 및 건의 등을 종합 조정하여 정부나 지자체 등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회의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역 농어업발전에 대한 의견 수렴과 자문 및 건의, 조사와 연구, 교육과 지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사업을 수행합니다.

□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한가요?

농어업인구 감소와 사회적 비중이 축소되고, FTA 등 시장개방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농어업보조금도 제약을 받게 되고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 산업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농어업을 위해 행정조직과 농어업인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스스로가 뭉쳐서 책임을 다하고, 권한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농어업회의소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하나요?

민간 농어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라는 조직 성격상 농어업인이 직접 구성하고 주도하기 때문에 농어업인과 농어업단체의 회비, 각종 사업수입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하고 초기 안정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요약하면,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에서 지원하여 운영합니다.

□ 농어업회의소는 어떻게 조직이 구성 되나요?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농협, 수협 등)으로 구성됩니다. 부문별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총회(대의원회)를 구성하고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이사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합니다. 원활한 사업의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 다른 나라에도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은 물론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